

## 사회과학과 금융위기: 사회과학의 최근 경향에 대한 몇 가지 반성

이언 샤피로(예일대)

번역: 정성원(뉴욕시립대)

### < 국문초록 >

필자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벌어진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토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론들 또는 연구방법에서 출발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접근법들에 대해 자신의 문제중심적(problem-driven) 사회과학 접근을 방어하고 재평가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하고 또 실행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하지도 못함으로써 2011년 <인간사랑>에서 한국어판으로 출간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인문사회과학』(*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ciences*)이 전달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준다는 것이다.

주제어: 사회과학, 방법론, 문제중심적 연구, 이론, 연구방법

## I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인문사회과학』(*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ciences*, 이하 『현실도피』로 표기함)이 영문판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던진 핵심적인 메시지가 옳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2008년 가을 발발하여 아직껏 그 경과가 진행 중인 전지구적 금융위기라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책의 핵심적 메시지란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 책의 5장에서 주장하듯이, 특정한 사건들의 발생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대다수 사회과학 분야들이 도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너무나도 높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예측이 가능한 것만을 기준으로 연구의제를 설정한다면, 우리는 연구방법 중심적 함정(method-driven trap)에 쉽사리 빠지게 된다. 그 함정 속에서 우리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의제들로 국한될 것이다.

금융위기를 둘러싼 사건들은 『현실도피』가 전달하고자 했던 중심적 메시지의 정당성을 다음의 두 가지 요점에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토록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에 의거 금융위기를 이해하지도, 또 금융위기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강구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은 2008년 10월 미 하원 정부개혁감시 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에서 전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토로했던 말, 즉 “대부기관들이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준 이기주의에 대해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충격적인 불신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sup>1)</sup>라는 언급에 잘

1) “Greenspan concedes error on regulation”, *New York Times*, October 23, 2008.

드러나 있기도 하다.

경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친 그린스펀의 오류는 그 이전에도 범해졌다. 그는 2001년 봄 감세를 시행해도 미국의 공공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갓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4년 뒤 그린스펀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던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흑자를 기대했던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해야만 했다.<sup>2)</sup> 그랬으면서도 그의 자신감은 위축되지 않았고, 또 그의 예지력은 의심받지도 않았다. 요컨대 그가 누리는 현자적 지위(guru-like status)는 결코 훼손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한 예로 2000년도에 부시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2360억 달러의 재정흑자가 감세조치가 발효된 2001년 이미 1280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연방정부의 채무증가는 예상치를 웃도는 이라크전 준비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의 탓으로 간주되었다. 2002년도에 들어와 재정흑자는 1570억 달러의 적자로 마침내 돌아섰고, 적자 규모는 2003년 이라크전이 개시될 무렵까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sup>3)</sup> 하지만, 감세조치를 지지할 때의 그린스펀이 과연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론을 도출해 냈는지, 당시 이성을 가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었다.

---

[http://www.nytimes.com/2008/10/24/business/economy/24panel.html?\\_r=1&scp=1&sq=october%202008%20greenspan&st=cse](http://www.nytimes.com/2008/10/24/business/economy/24panel.html?_r=1&scp=1&sq=october%202008%20greenspan&st=cse) [10-26-2010].

2) Edmund Andrews, “Greenspan defends his support for tax cuts”, *New York Times*, March 16, 2005.

<http://www.nytimes.com/2005/03/16/politics/16fed.html?scp=1&sq=2001+greenspan+large+surpluses&st=nyt> [10-26-2010].

3) 이 수치의 출처에 대해서는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2010,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Historicals/> [10-26-2010]을 볼 것.

## II

대규모 감세조치를 가능하게 했던 이 같은 미국의 자신감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초반 정점에 달한 오만한 자의식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이 같은 오만함은 2002년 언론인 론 서스킨드(Ron Susskind)로부터 이라크 침공계획의 사실적 근거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부시의 한 고참 보좌관이 진술한 말, 즉 “우리가 바로 제국이며,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sup>4)</sup>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권력에 취한 정부는 최후의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도 자신이 행동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또한 최후의 순간은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도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좋은 사례다. 이라크는 어떤 대량살상무기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 사담 후세인은 알 카에다나 미국에 대한 9·11 공격과는 어떤 연관도 갖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값싼 비용으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전체 작전은 2003년 여름 종결되고 전비는 미국이 점령한 이라크의 석유수익으로 충당하기로 되어있었다—파멸적인 오류였다는 것 등이 2004년 11월까지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곤궁해지는 국가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그 해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여유 있는 차이로 승리했으며 의회에서 공화당의 의석도 증가했다. 존 로크의 적절한 주장처럼, 최후의 순간은 “오랜 기간에 걸친 일련의 남용, 기만, 술책 등이 모두 동일한 방

4) Ron Susskind, “Faith, certainty, and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17, 2004.  
<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 [10-26-2010].

5) 이에 대해서는 Ian Shapiro, *Containment: Rebuilding a Strategy against Global Terr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를 참조할 것.

식으로 움직여 주어야<sup>6)</sup> 도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 III

마침내 금융위기로 인한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부시 행정부와 광범위한 기득권층의 지도적 인사들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사여구를 지나치게 믿었었기에 충격에 휩싸이게 된 듯했다. 이라크전과 관련된 상황 또한 다르지 않았다. 정보기관들 내부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시되었다. 이들이 옳았음이 판명되었을 때조차도 이라크전 개시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일축되었던가는 망각되거나 경시되었다.<sup>7)</sup>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작동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유사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커다란 버블을 경고하던 의심의 목소리들이 확실하게 무시되었다.<sup>8)</sup>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기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금융부문에서 정부측 규제기관들은 자신들이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이해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닭장 열쇠가 사실상 여우에게 맡겨진 셈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러시아는 러시아의 기업 올리가르히

6)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 By Ian Shapiro (Yale University Press, 2003), § 225, 138.

7) *Containment*, 15-101쪽을 볼 것.

8) 이에 대해서는 Robert Shiller, *Irrational Exuberance*, 2nd ed.(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를 참조할 것.

(oligarch)들이 러시아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공히 직면하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할 때까지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범위가 미국에서 조용하게 완화되었다는 것은 지금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실례는 저축기관감독청(OTS: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의 저축대부 조합 파산위기와 2000년대 초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대규모 저축금융기관들의 파산을 겪고도, 2008년 금융붕괴가 시작될 때까지 저축기관감독청은 자신이 감독하기로 되어있던 대출은행들의 규제기관이라기 보다는 이들을 위한 로비스트처럼 행동하였다. 생존 자체를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불하는 보수에 의존하는 저축기관감독청은 악명 높은 무간섭 접근법(hands-off approach)을 약속하고 또 이를 시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꾸려나갔던 것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용자기관인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Countrywide Financial)은, 파산을 면하기 위한 헛된 시도로서 115억 달러를 차용하도록 되기 5개월 전인 2007년 3월, 보다 더 엄격한 기관들을 피하려고 저축기관감독청을 자신의 규제기관으로 선택하기도 했다.<sup>9)</sup> 2008년 말까지, 저축기관감독청의 감독 권한 하에서 약 3560억 달러를 주 무르고 있던 저축금융기관들이 파산했으며, 미국 정부는 당시까지 파산한 미국은행으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을 포함하여 저축기관감독청이 감독했던 3개의 가장 큰 기관들을 압류하게 되었다.<sup>10)</sup>

9) Vikas Bajaj, "Countrywide Financial borrows \$11.5 billion to shore up cash", *New York Times* (August 17, 2007)  
<http://www.nytimes.com/2007/08/17/business/worldbusiness/17iht-mortgage.1.7152315.html> [06-30-2009].

10) Binyamin Appelbaum and Ellen Nakashimab, *Washington Post*(November 3, 2008)

2004년 당시 골드만삭스의 수장이었던 헨리 폴슨 주니어(Henry Paulson Jr.)는, 투자은행들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위탁 받을 수 있음을 근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이들 은행들에게 자본준비금(capital reserve) 요건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 조직된 투자은행 대표단을 이끌었다. 그 대신에 투자은행들은 자신들의 대차대조표를 증권거래위원회의 감사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단 한 명의 관리직도 없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4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추적해야 할 책무를 진 총 7명의 조사관들로, 실제로 어떤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슨이 이미 미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인 2008년 3월까지도,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보유한 “완충 자본(capital cushions)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면서 의회를 다독이고만 있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자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했고, 다른 주요 투자은행들도 악성인 통합 모기지 채무(consolidated mortgage debt)에 익사하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이 매우 신속하게 드러났다.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방정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은행들을 구조해야 했다.<sup>11)</sup> 주목할 만한 점은, 크라이슬러(Chrysler)나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같은 제조업체의 경영진들이 2009년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대가로 실업자가 되었어야 했던 데 반해, 투자은행가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잃기는커녕 보너스까지 유지할

---

[06-30-2009].

11) Stephen Labaton, “The Reckoning: Agency’s ’04 Rule Let Banks Pile Up New Debt”, *New York Times*(October 3, 2008)  
<http://www.nytimes.com/2008/10/03/business/03sec.html> [06-30-2009].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힘에 대한 도전은 진정 불가능해 보인다.<sup>12)</sup>

#### IV

1988년 애덤 쉐보르스키와 마이클 월러스틴은 국가의 자본에 대한 구조적 종속성을 분석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히 작동하는 체제(capitalist democracies) 하에서는 선거를 통해 강력한 인민의 위임을 향유하는 정부라 해도, 나라 전체를 통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자본의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세금과 규제 항목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sup>13)</sup> 이 논문의 발표 이후 20여 년에 걸쳐 전세계를 통해 자본에 대한 통제가 쇠퇴하면서, 자본의 공격 위협은 점차 자본의 해외유출 위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자본이 자본유출보다 훨씬 더한 것을 위협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투자는 행들은 정치적 생존이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된 체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실제로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정치인들의 머리에 총을 겨눌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위기가 각기 정점에 도달했을 때, 서구의 정치지도자들은 금융부문에

12) 이에 대해서는 “Bank bonuses bigger than ever, in the spotlight”, *New York Times*, January 10, 2010.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10/01/10/banks-prepare-for-bigger-bonuses-and-publics-wrath/> [09-28-2010]; Robert Scheer, *The Great American Stickup: How Reagan Republicans and Clinton Democrats Enriched Wall Street While Mugging Main Street*(Nation Books, 2010)등을 볼 것.

13) Adam Przeworski and Michael Wallerstin, “Structural dependence of the state on capit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No. 1(1988), 11-29.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황으로 거의 모두를 확실하게 몰고 갈 격동적인 금융붕괴를 자신의 책임 하에 허용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유로 존(Euro zone)의 붕괴를 초래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른 남부 유럽 경제까지 채무불이행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채무불이행 직전으로 그리스 가 몰리자, 그리스의 채무에 노출된 독일 은행들에 대한 재정보증을 결국 독일의 납세자들이 떠맡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거상의 자살행위를 우리에게 시현해 보여주었다.<sup>14)</sup> 금융위기에 관한 사화(史話)의 마지막 장이 아직 다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그동안 주요 은행에 앉아 투자정책을 좌지우지 해왔던 노름꾼들에게 서구의 주요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취약해져 버렸는지 이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 정부들은 투자은행들에 기만 당하여 자신들이 전례 없던 영구적인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던 것인데, 실상은 은행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던 것뿐이었다. 과거와 같은 호경기과 불경기간의 사이클(boom-bust cycle)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호경기만 지속될 거라는 신화에 놀아난 순진한 정부들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호황의 절정기가 끝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sup>15)</sup>

14) 이에 대해서는 “German banks have big investment in Greece”, *New York Times*, April 28, 2010.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10/04/28/german-banks-have-big-investment-in-greece/> [09-28-2010] 그리고 Kate Connolly, “Angela Merkel punished by voters for dithering over Greek bailout,” *The Guardian*, May 9, 2010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0/may/09/angela-merkel-german-regional-election> [09-28-2010]등을 참조할 것.

15) 이에 관해서는 Ian Shapiro, *The Real World of Democratic Theory*(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1-19를 볼 것.

## V

일단 당면한 신용위기가 지나간다면, 금융붕괴가 갖는 엄청난 중요성으로 인해 서구 정치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금융기관들에 양도했었던 힘의 일부분을 대담하게 찾아오하고자 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군가 품을 수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2010년 말까지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도 못했고 또 위기 대처를 위한 실용적 대응을 고안해 내는 데도 거의 완전히 무능했기에, 서구 정부들은 금융위기 관리에 대한 도움을 전적으로 이 금융위기를 설계한 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16)</sup> 붕괴하는 파생시장과 수천억 달러의 부채담보부증권(securitized debt obligations)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정부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투자은행가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재난들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박탈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투자은행업 규제 안을 침몰시키기 위해 고안된 투자은행업 관련 로비활동이 2009년 초부터 미국에서 강력하게 착수되었고 거의 성공을 거둘 뻔도 했다. 결국 은행들은 규제관련 법령을 완전히 좌초시키는

---

16)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외는 존 지나코플로스(John Geanakoplos)의 레버리지 사이클(leverage cycle)과 이의 관리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John Geanakoplos, "The leverage cycle", Yale University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 1715 (July 2009)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1943##](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1943##) [10-31-2010]; Ana Fostel and John Geanakoplos "Leverage Cycles and the Anxio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4(2008), 1211-1244. "Solving the present crisis and managing the leverage cycle", Yale University Cowles Foundation working paper # 1751 (January 2010)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9488](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9488) [10-31-2010] 등을 참조. 하지만 불행히도 지나코플로스의 조언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데는 실패했지만 이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를 통해, 퇴출시키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비대해진 은행들의 체제 자체의 근간마저 흔들었던 행위에서 비롯된 대다수 논쟁사안들을 둘러싼 규제기관들의 결정이 차후로 미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수년 전에 이미 저축기관감독청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 규제기관들도 곧 규제법령을 더욱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로비활동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견지명 없이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0년의 은행업규제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후에, 한 대규모 투자은행의 경영진 인사 한 명에게 투자은행들이 (금융위기와 핵심적으로 얽혀 있던) 자산운용사업에서 철수할 것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우리가 자산운용사업 부문을 포기할지 아니면 계속할지의 여부가 명료해지기까지만도 5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었지만, 투자은행들이 이 사업 부문을 유지하리라는 상당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의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그리고 2000년대 초의 저축금융기관들의 파산사태가 그렇게도 신속하게 망각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옳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VI

금융붕괴는 다음의 두 번째 요점에서도 『현실도피』가 전달하고자 했던

---

17) 이에 대해서는 Nathaniel Popper, “Banks step up spending on lobbying to fight proposed stiffer regulations”, *Los Angeles Times*(February 16, 2010) <http://articles.latimes.com/2010/feb/16/business/la-fi-bank-lobbying16-2010feb16> [08-26-2010] 그리고 Brady Dennis and Stephen Mufson, “Banks lobby against financial regulatory overhaul”, *The Washington Post*(March 18, 2010)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3/18/AR2010031805370.html> [08-26-2010] 등을 볼 것.

중심적 전언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금융위기가 학계에 어떤 뚜렷한 충격도 던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체계적 연구 없이 간단히 살펴본 것뿐이지만, 필자는 어느 주요 대학에서도 금융위기를 반영하여 경제학 커리큘럼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학생들이 이에 대해 간헐적으로나마 몇 차례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여태까지처럼 서구 대학들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sup>18)</sup> 정치학 커리큘럼도 마찬가지로, 필자는 규제나 공공금융 관련 과목들의 커리큘럼이 금융위기를 반영하여 다시 고안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나 『아메리칸 폴리텍컬 사이언스 리뷰』 같은 학술지의 최근 호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해도, 금융위기 이전에 개재되었던 논문들과 연구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논문들은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현실도피』 서문에서 필자가 언급했던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학술분야와 이들이 다루어야 할 연구대상들 간의 거의 완전히 단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져 보인다. 특히 홉스가 말한 현학자들의 시시껄렁한 중얼거림을 연상시킬 정도로<sup>19)</sup>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용어로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데 비참할 정도까지 실패했다는 면에서 볼 때, 그 단절은 더더구나 충격적인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특히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부당할 정도로 가혹하게 들

18)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경제학 커리큘럼에 대한 학생들의 불평이 예상대로 교수진의 무관심과 맞닥뜨려진 2010년 가을학기의 버클리(Berkeley)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http://anticap.wordpress.com/2010/10/25/jamming-neoclassical-economics/\[10-31-2010\]](http://anticap.wordpress.com/2010/10/25/jamming-neoclassical-economics/[10-31-2010])를 볼 것. 이러한 60년대의 이빨 빠진 재연은 역사란 “처음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헤겔(Hegel)의 소견에 대한 맑스(Marx)의 언급을 상기시킨다.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Moscow, International Publishers, 1994), 3.

19) Thomas Hobbes, *Leviathan*, ed. by Ian Shapiro(Yale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 IV.

리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현실도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본가정들, 특히 인간 심리상태와 관련된 가정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고전주의 가정들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들이 명시화되면서 소위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 대두하였다. 그 옹호자들은 합리성에 대한 기본가정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를 보다 밀접히 관찰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경제에 대한 일반론들을 구축하려 시도한다. 실제로 금융위기를 예측한 극소수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실러(Robert Schiller)가 이 진영에 속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필자가 최근의 한 학회에서 들은 그에 대한 농담이 시사하듯이, 경제학을 직업으로 하는 실러의 동료들에게보다 입만 살아있는 학부생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다. 그 농담은 실러가 지난 세 번의 경기후퇴 중에서 아홉 번의 경기후퇴를 예언했다는 것이었다.

## VII

필자 이미 언급했듯이, 지나치게 예언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론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다. 『현실도피』 5장에서 제시된 이유들 때문에, 행태연구(behavioral research)라 해도 이론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분별없는 연구방법 중심적(method-driven) 접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대두가 시사하고 있는 바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본 모델들을 뒷받침해 온 인간의 심리에 대한 설명과는 확연히 상이하면서도 보다 풍부하게 인간의 심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심리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 많은 공헌을 못하고 있다. 인지기능한계성(cognitive limitations), 전망이론(prospect theory), 그리고 197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 등에 대한 몇몇 전도유망한 연구에도 불구하고,<sup>20)</sup> 주요 심리학 관련 학과들이 교수의 우선채용순위나 연구투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심리학에서의 지배적인 추세는 바로 신경과학(neuro-science)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류의 정치 후보자들을 선호하는가 등과 같은 심리적 태도(psychological attitudes)와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physiological changes) 간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구축하려는 시도 등에 엄청난 자원이 투자되고 있다.<sup>21)</sup> 필자의 판단에, 이러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 유용한 심리학적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가망성이란, 태양의 화학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뉴헤이븐의 일상적 일기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식의 시도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얻을 가능성과 대략 유사해 보이는 것이다.<sup>22)</sup>

물론 태양의 화학적 특성과 뉴헤이븐의 일기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뉴헤이븐에서의 일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요점은, 이 둘 간의 관계는 너무도 간접적이고

---

20) 이에 대해서는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March 1979), 263-92;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 (January 1981), 453-458; Amos Tversky Daniel Kahneman, Paul Stovic, and Amos Tversky, *Judgment Under Uncertaint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등을 볼 것.

21) 이에 관해서는 J. T. Kaplan, J. Freedman, and M. Iacoboni, M., “Us versus them: Political attitudes and party affiliation influence neural response to faces of presidential candidates”, *Neuropsychologia*, Vol. 45(2007), 55-64를 볼 것.

22) 이 점에 대해서는 Robert Shulman and Ian Shapiro, “Reductionism in the human sciences: A philosopher’s game”, in Christopher Mantzavinos, ed.,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24-29를 볼 것.

또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들이 이 둘 사이에 연계되기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듯 무모한 방식으로 뉴헤이븐의 일기변화를 이해하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태양의 화학적 특성과 뉴헤이븐의 일기변화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종류의 현상들은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 분명 좌우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제학이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을 보다 더 현실과 부합하게 해 줄 인간심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도피한 만큼이나 현실로부터 더 멀리 도피하는 데만 노력을 경주한다면, 인간심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별다른 도움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

## 참고문헌

- Andrews, Edmund. (2005). "Greenspan defends his support for tax cuts", *New York Times*, March 16.
- Bajaj, Vikas. (2007). "Countrywide Financial borrows \$11.5 billion to shore up cash", *New York Times*, August 17.  
<http://www.nytimes.com/2007/08/17/business/worldbusiness/17iht-mortgage.1.7152315.html> [06-30-2009].
- Connolly, Kate. (2010). "Angela Merkel punished by voters for dithering over Greek bailout", *The Guardian*, May 9.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0/may/09/angela-merkel-german-regional-election> [09-28-2010].
- Dennis, Brady and Stephen Mufson. (2010). "Banks lobby against financial regulatory overhaul", *The Washington Post*, March 18.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3/18/AR2010031805370.html> [08-26-2010].
- Fostel, Ana and John Geanakoplos. (2010). "Solving the present crisis and managing the leverage cycle", Yale University Cowles Foundation working paper # 1751, January.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9488](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9488) [10-31-2010].
- \_\_\_\_\_. (2008). "Leverage Cycles and the Anxio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4, 1211-1244.
- Geanakoplos, John. (2009). "The leverage cycle", Yale University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 1715, July.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1943##](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1943##) [10-31-2010].
- Hobbes, Thomas. (2010). *Leviathan*, ed. by Ian Shapiro, Yale University Press, 2010.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263-92.
- \_\_\_\_\_.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 453-458.
- Kahneman, Daniel and Paul Slovic, and Amos Tversky.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plan, J. T., J. Freedman and M. Iacoboni, M. (2007). "Us versus them: Political attitudes and party affiliation influence neural response to faces of presidential candidates", *Neuropsychologia*, Vol. 45, 55-64.
- Labaton, Stephen. (2008). "The Reckoning: Agency's '04 Rule Let Banks Pile Up New Debt", *New York Times*, October 3.  
<http://www.nytimes.com/2008/10/03/business/03sec.html> [06-30-2009].
- Locke, John. (2003).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 By Ian Shapiro, Yale University Press.
- Marx, Karl. (1994).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Moscow, International Publishers.
- Popper, Nathaniel. (2010). "Banks step up spending on lobbying to fight proposed stiffer regulations", *Los Angeles Times*, February 16.



<http://articles.latimes.com/2010/feb/16/business/la-fi-bank-lobbying16-2010feb16> [08-26-2010].

Przeworski, Adam and Michael Wallerstin. (1988). “Structural dependence of the state on capit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No. 1, 11-29.

Scheer, Robert. (2010). *The Great American Stickup: How Reagan Republicans and Clinton Democrats Enriched Wall Street While Mugging Main Street*. Nation Books.

Shapiro, Ian. (2007). *Containment: Rebuilding a Strategy against Global Terr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11). *The Real World of Democratic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iller, Robert. (2005). *Irrational Exuberance*.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ulman, Robert and Ian Shapiro. (2009). “Reductionism in the human sciences: A philosopher’s game”, in Christopher Mantzavinos ed.,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4-29.

Suskind, Ron. (2004). “Faith, certainty, and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17.

<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 [10-26-2010].

White House. (2010).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2010.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Historicals/> [10-26-2010]

#### Articles from *New York Times*

“Greenspan concedes error on regulation”, *New York Times*, October 23, 2008, [http://www.nytimes.com/2008/10/24/business/economy/24panel.html?\\_r=1&scp=1&sq=october%202008%20greenspan&st=cse](http://www.nytimes.com/2008/10/24/business/economy/24panel.html?_r=1&scp=1&sq=october%202008%20greenspan&st=cse) [10-26-2010].

“Bank bonuses bigger than ever, in the spotlight”, *New York Times*, January 10, 2010.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10/01/10/banks-prepare-for-bigger-bonuses-and-publics-wrath/> [09-28-2010].

“German banks have big investment in Greece”, *New York Times*, April 28, 2010.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10/04/28/german-banks-have-big-investment-in-greece/> [09-28-2010].

**【Abstract】**

**The Social Sciences and the Financial Crisis:  
Reflections on Recent Trends**

Ian Shapiro(Yale University)

The author reassesses his defense of problem-driven social science against approaches that start from favored theories or methods in ligh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09. He argues that the failure of the disciplines either to anticipate or to propose viable solutions to the crisis vindicates the argument of his book, *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ciences* which will be published in Korean by INGANSARANG in 2011.

Key Words: social science, methodology, problem-driven research, theory, method

접 수 일: 2011년 3월 2일

심 사 일: 2011년 4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6일

# The Social Sciences and the Financial Crisis: Reflections on Recent Trends

Ian Shapiro(Yale University)

## I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during the five years since the English edition of *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ciences* appeared, a development that surely vindicates the book's central message, has be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unfolding in the fall of 2008 and has yet to run its full course. I do not refer here to the fact that the crisis was not predicted by mainstream economists in the West. As I argue in chapter five, prediction of particular events is an impossibly high standard for the vast majority of social science to aspire to. If we define the research agenda by reference to what can be predicted, we are likely to fall into a method-driven trap that for the most part limits us to studying trivia.

When I say that the events surrounding the financial crisis vindicate the central message of *Flight from Reality*, I have two other points in mind.

The first concerns the surprise of so many mainstream economists that their theories did not provide the tools to understand the crisis or to head it off once it began to unfold. In October of 2008 former U.S. Federal Reserve Chairman Alan Greenspan told 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Those of us who have looked to the self-interest of lending institutions to protect shareholders’ equity, myself included, are in a state of shocked disbelief.”<sup>1)</sup>

This was not the first time Greenspan had been damagingly wrong. In the spring of 2001 he had defended the new Bush Administration’s massive tax cuts on the grounds that, without them, the U.S. would run out of public debt. Four years later he was forced to acknowledge that he and many others “had been wrong to expect trillions of dollars in surpluses that never materialized.”<sup>2)</sup> One might have supposed that Greenspan’s earlier failure would have reduced his self-confidence, or at least made others skeptical of his prognostications, but his almost guru-like status remained unsullied. The federal government’s debt was blamed on unforeseeable factors, such as the unexpectedly high costs of the Iraq war, even though the \$236 billion surplus that Bush inherited from President Clinton in 2000 had declined to \$128 billion in 2001, the year the tax cuts were enacted.

- 
- 1) “Greenspan concedes error on regulation”, *New York Times*, October 23, 2008. [http://www.nytimes.com/2008/10/24/business/economy/24panel.html?\\_r=1&scp=1&sq=october%202008%20greenspan&st=cse](http://www.nytimes.com/2008/10/24/business/economy/24panel.html?_r=1&scp=1&sq=october%202008%20greenspan&st=cse) [10-26-2010].
  - 2) Edmund Andrews, “Greenspan defends his support for tax cuts”, *New York Times*, March 16, 2005. <http://www.nytimes.com/2005/03/16/politics/16fed.html?scp=1&sq=2001+greenspan+large+surpluses&st=nyt> [10-26-2010].

The surplus turned into a \$157 billion deficit the following year, and that deficit had more than doubled by the time the war began in 2003.<sup>3)</sup> Any reasonable person should have wondered whether the reasoning that informed Greenspan's economic assumptions when he supported the tax cuts had anything much to do with reality.

## II

Some of this confidence was just the arrogance of power, which surely reached its apotheosis in the early years of the George W. Bush Presidency. As a senior Bush aide put it to journalist Ron Suskind in 2002 when Suskind questioned the factual basis for the planned attack on Iraq, "We're an empire now, and when we act, we create our own reality."<sup>4)</sup> An administration drunk with power can believe such things until the day of reckoning arrives. And it seems that day of reckoning can sometimes be staved off for a remarkably long time. With respect to the Iraq war, by November of 2004 it was widely known that there had not been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Iraq, that Saddam Hussein had no connection to Al Qaeda or the 9/11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predictions of a quick, easy, and cheap victory (the entire operation was supposed to

---

3) Figures taken from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2010.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Historicals/> [10-26-2010].

4) Ron Suskind, "Faith, certainty, and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17, 2004. <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 [10-26-2010].

be concluded in the summer of 2003 and paid for out of recouped Iraqi oil revenues) had been catastrophically wrong.<sup>5)</sup> Yet despite all this and the strapped fiscal condition of the nation, President Bush won the November election by a comfortable margin and the Republicans increased their strength in Congress. It seems that John Locke was right it takes “a long train of abuses, prevarications, and artifices, all tending the same way,” before the day of reckoning arrives.<sup>6)</sup>

### III

When the financial reckoning finally came, it seems that part of why leading figure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wider establishment were so surprised was that, despite a good deal of discordant evidence, they had believed too much of their own rhetoric. Again this was not unlike the situation with the war, where numerous critics within the intelligence agencies had raised doubts about the allegation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Iraq and been ignored. Yet when they turned out to have been right, the manner in which they had been swept aside in the run-up to the war was forgotten or downplayed.<sup>7)</sup> With the financial crisis, the

---

5) See Ian Shapiro, *Containment: Rebuilding a Strategy against Global Terr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6)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 By Ian Shapiro (Yale University Press, 2003), § 225, 138.

7) See *Containment*, 15-101.

mechanism was different but the result was similar. Certainly, skeptical voices warning of major bubbles in the equities and real estate markets had been ignored.<sup>8)</sup> But, more important than this was the fact that regulatory agencies were starved of vital information needed for them to do their job. In the financial sector government regulators became critically dependent on the interests they were supposed to be regulating. In effect, the foxes were given the keys to the chicken coop. This is ironic in view of a criticism that was commonly directed at Russia during those same years: that the Russian business oligarchs had more power than the Russian state.

The extent to which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as quietly dismantled during the run-up to the 2008 financial crisis is now well known. Perhaps the most striking illustration was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Despite the experience of the Savings and Loan crisis during the 1980s and the bankruptcy of large thrifts under its control in the early new millennium,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2008 financial collapse the OTS behaved more like a lobbyist for, rather than a regulator of, the lending banks it was meant to supervise. Dependent for its survival on the fees paid by the institutions it regulated, OTS shopped for business by promising-and delivering-a notoriously hands-off approach. America's largest mortgage lender, Countrywide Financial, switched to OTS in March of 2007 to avoid more prying regulators-five months before it would be forced to borrow \$11.5 billion in a vain attempt to stave off its unraveling.<sup>9)</sup> By the end of 2008 thrifts under OTS's regulatory purview

---

8) See Robert Shiller, *Irrational Exuberance*, 2nd ed.(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9) Vikas Bajaj, "Countrywide Financial borrows \$11.5 billion to shore up cash", *New*

controlling some \$356 billion had failed, and the government had seized the three largest institutions it regulated—including Washington Mutual, at the time the largest American bank ever to collapse.<sup>10)</sup>

In 2004, then head of Goldman Sachs Henry Paulson Jr. led a delegation of investment bankers to convinc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that they should be exempt from capital reserve requirements on the grounds that, with assets in excess of \$5 billion, they could be trusted to protect investors on their own. In return, they promised to open their balance sheets to inspection by the SEC. But with a total of seven inspectors responsible for keeping track of assets in excess of \$4 trillion, working in an office that for much of the time lacked even a director, virtually no inspections were performed. As late as March of 2008, by which time Paulson had becom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the U.S. government, SEC chairman Christopher Cox was reassuring Congress that the SEC had “a good deal of comfort about the capital cushions” of the major investment banks. Six months later Lehman Brothers went bankrupt and the other major investment banks were all quickly revealed to be on the verge of drowning in toxic consolidated mortgage debt. They had to be rescued by multibillion dollar bailou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forestall a systemic meltdown.<sup>11)</sup> And although executives from industrial companies

---

*York Times* (August 17, 2007)

<http://www.nytimes.com/2007/08/17/business/worldbusiness/17iht-mortgage.1.7152315.html> [06-30-2009].

10) Binyamin Appelbaum and Ellen Nakashimab, *Washington Post* (November 3, 2008) [06-30-2009].

11) Stephen Labaton, “The Reckoning: Agency’s ’04 Rule Let Banks Pile Up New



like Chrysler and General Motors lost their jobs as the price of the 2009 government bailouts, it is notable that the investment bankers were immune-retaining their jobs and bonuses. It seems that their power is unchallengeable.<sup>12)</sup>

#### IV

In 1988, Adam Przeworski and Michael Wallerstein wrote about the structural dependence of the state on capital, arguing that in capitalist democracies even governments with strongly populist electoral mandates are forced to temper tax and regulatory agendas to anticipate the possibility of capital strikes that can render their countries ungovernable.<sup>13)</sup> The decline in capital controls around the world over the next two decades meant that the threat of capital strikes increasingly came to mean the threat of capital flight. But the financial crisis of 2008-10 revealed that financial capital can threaten a lot more than exit. Having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system in which political survival meant bailing out the banks, when the crisis came the banks were in a position to put guns to the heads of politicians.

---

Debt”, *New York Times* (October 3, 2008)

<http://www.nytimes.com/2008/10/03/business/03sec.html> [06-30-2009].

12) See “Bank bonuses bigger than ever, in the spotlight”, *New York Times*, January 10, 2010.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10/01/10/banks-prepare-for-bigger-bonuses-and-publics-wrath/> [09-28-2010; Robert Scheer, *The Great American Stickup: How Reagan Republicans and Clinton Democrats Enriched Wall Street While Mugging Main Street* (Nation Books, 2010).

13) Adam Przeworski and Michael Wallerstein, “Structural dependence of the state on capit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No. 1(1988), 11-29.

At each peak of the crisis, Western political leaders were confronted with the Hobson's choice of either bailing out the financial sector, or being held responsible for permitting a cataclysmic financial meltdown that would most likely usher in a new depression. Thus in May of 2010 we witnessed the hitherto unthinkable specter of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ourting electoral suicide by committing German taxpayers to underwriting the German banks' exposure to Greek debt, as that country teetered on the verge of a default that threatened to destroy the Euro zone and trigger defaults in the other southern European economies that would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European Union.<sup>14)</sup> The final chapter in this saga has yet to be written, but it is beyond question that leaders of the major Western governments had no idea of the extent to which they had become vulnerable to the gamblers who had taken control of investment policy in the major banks. The governments bobbed along, corks floating on what they had been suckered into believing was an unprecedented wave of permanent economic prosperity. Gullible believers of the myth that the boom-bust cycles of the past had been repealed, they had no idea what they would do when the tide ran out-as it inevitably had to do.<sup>15)</sup>

---

14) See "German banks have big investment in Greece", *New York Times*, April 28, 2010.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10/04/28/german-banks-have-big-investment-in-greece/> [09-28-2010] and Kate Connolly, "Angela Merkel punished by voters for dithering over Greek bailout," *The Guardian*, May 9, 2010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0/may/09/angela-merkel-german-regional-election> [09-28-2010].

15) See Ian Shapiro, *The Real World of Democratic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1-19.

## V

One might think that, once the immediate credit crisis had passed, the sheer magnitude of the collapse would have emboldened Western politicians to take back some of the power that had been ceded to financial institutions over the previous decade, but surprisingly little had been accomplished in this regard by the end of 2010. With the academic economists almost completely useless in providing tools to understand the crisis or design a viable response to it, Western governments found themselves utterly reliant on the architects of the crisis to help them manage it.<sup>16)</sup> The collapsing derivatives markets a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securitized debt obligations were not fully understood even by the people who created them. Nonetheless, governments had no choice but to work with them. Because everyone knew this, the disaster they had wrought did not deprive them of their power.

Starting early in 2009, the investment banking lobby in the United States engaged in an enormous effort-which almost succeeded-that was designed to scuttle the Obama Administration's plans for investment banking regulation.

---

16) A notable exception here is the analysis offered by John Geanakoplos of the leverage cycle and how to manage it. See John Geanakoplos, "The leverage cycle," Yale University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1715 (July 2009)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1943##](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1943##) [10-31-2010]; Ana Fostel and John Geanakoplos "Leverage Cycles and the Anxio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4(2008), 1211-1244. "Solving the present crisis and managing the leverage cycle", Yale University Cowles Foundation working paper #1751 (January 2010)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9488](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9488) [10-31-2010]. Unfortunately Geanakoplos's recommendations have largely been ignored.

In the end the banks failed to derail the legislation entirely, but they weakened it considerably ensuring, among other things, that many of the most contentious matters having to do with systemically risky behavior by banks deemed too big to fail would be determined later by regulators.<sup>17)</sup> It does not require giant leaps of imaginative foresight to forecast that these regulators will be subjected to relentless lobbying campaigns to defang the legislation further, as happened with OTS and the SEC in the years before the crisis. After the 2010 banking regulation bill passed the U.S. Congress, I asked a partner at one of the largest investment banks whether they would now be out of the proprietary trading business (which had been so centrally implicated in the crash). His answer was “it will be five years before it will be clear whether we can kill that part,” but he thought it a pretty good bet that they would succeed. Given how quickly the savings and loan crisis of the 1980s and the thrift failures of the early 2000s were forgotten, it is hard not to believe that he was right.

---

17) See Nathaniel Popper, “Banks step up spending on lobbying to fight proposed stiffer regulations”, *Los Angeles Times*(February 16, 2010).  
<http://articles.latimes.com/2010/feb/16/business/la-fi-bank-lobbying16-2010feb16> [08-26-2010] and Brady Dennis and Stephen Mufson, “Banks lobby against financial regulatory overhaul”, *The Washington Post*(March 18, 2010)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3/18/AR2010031805370.html> [08-26-2010].

## VI

The second point I have in mind in saying that the central message of *Flight from Reality* stands vindicated by the financial meltdown concerns the lack of any discernibl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academy. I have not engaged in a systematic study of this, but informal searching has failed to turn up a single instance in which a major university has rethought its economics curriculum since the crisis began. Despite a few sporadic outbursts from students, it is business as usual in Western universities.<sup>18)</sup> The same is true of the political science curriculum, where I have not been able to discover any evidence of redesigned courses on regulation or public finance. Perusal of recent issues from such journals a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oes not reveal anything in method or content than what was in them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 almost complete disconnect between the academic disciplines comprising the human sciences and their objects of study on which I remarked in the introduction to *Flight from Reality* seems as pronounced as it ever has been—shockingly so in light of the abject failure of these disciplines, taken on their own terms, in accounting for the crisis. Hobbes’s remarks on the

---

18) Predictably, perhaps, one of these was at Berkeley in the fall of 2010, where student complaints about the economics curriculum were met with indifference on the part of the faculty. See [http://anticap.wordpress.com/2010/10/25/jamming-neoclassical-economics/\[10-31-2010\]](http://anticap.wordpress.com/2010/10/25/jamming-neoclassical-economics/[10-31-2010]). This toothless replay of the sixties calls to mind Marx’s comment on Hegel’s observation that history repeats itself: “the first time as tragedy, the second time as farce.”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Moscow, International Publishers, 1994), 3.

insignificant mutterings of the schoolmen come to mind.<sup>19)</sup>

This might sound unduly harsh, especially in relation to economics. As I note at the end of *Flight from Reality*, in recent years significant numbers of economists have begun questioning the standard assump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especially about human psychology. The principal manifestation of this has been the rise of so-called behavioral economics, whose proponents eschew standard assumptions about rationality and try to build generalizations about the economy based on closer observation of what people actually do. Indeed Robert Schiller, one of the few economists to predict the crisis, belongs in this camp. Schiller's peers in the economics profession are less impressed, however, than are the chattering classes. A joke I heard at one recent conference was that Schiller has predicted nine out of the last three recessions.

## VII

We should not be overly concerned with prediction, as I have already noted, but this does not mean abandoning theory. For reasons that are set out in chapter five, behavioral research that is uninformed by theory risks becoming mindlessly method-driven in its own way. The rise of behavioral economics surely points to the need for a very different and much richer account of human psychology than that which informs the standard

---

19) Thomas Hobbes, *Leviathan*, ed. by Ian Shapiro (Yale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 IV.

neo-classical models.

Unfortunately, however, the psychology discipline does not have much to contribute in this regard. Despite some promising research on cognitive limitations, prospect theory, and framing effects that dates back to the late 1970s,<sup>20)</sup> recently the dominant trend in psychology, as reflected in the hiring priorities and research investments of the major academic departments, is in the direction of neuro-science. Vast resources are being poured in to trying to establish causal links between psychological attitudes, including such things as which kinds of political candidates people prefer, and physiological changes in the human brain.<sup>21)</sup> In my judgment this has about as much chance of yielding useful psychological knowledge as we could get if we tried to understand the daily variations in the New Haven weather by studying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sun.<sup>22)</sup>

It is not that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sun and the New Haven weather are entirely unconnected. After all, if there were no sun there would be no weather in New Haven. Rather, my point is that the links between the two are so indirect, and mediated by so many immensely

---

20) See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March 1979), 263-92;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January 1981), 453-458; Amos Tversky Daniel Kahneman, Paul Stovic, and Amos Tversky, *Judgment Under Uncertaint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1) See J. T. Kaplan, J. Freedman, and M. Iacoboni, M., "Us versus them: Political attitudes and party affiliation influence neural response to faces of presidential candidates", *Neuropsychologia*, Vol. 45(2007), 55-64.

22) See Robert Shulman and Ian Shapiro, "Reductionism in the human sciences: A philosopher's game", in Christopher Mantzavinos, ed.,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24-29.

complex process that we understand minimally if at all, that no reasonable person should bet anything much on the success of such a venture. The kinds of phenomena we seek to understand in the study of politics and economics are likely to depend on factors that are considerably more proximate to them than are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sun to variations in the New Haven weather. In short, economics is surely in need of a new theory of human psychology to help bring it down to earth. But if the psychologists continue investing in their own new flight from reality to the extent that they appear to be doing, then they are unlikely to provide much assistance for that endeavor.